

2026년 3월 11일의 메시지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세월을 나이로 바꾸어 보면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2011년 3월 11일,

수많은 고귀한 생명과 평온한 삶을 빼앗겼고 우리 현민들의 일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마음속의 시계가 따라가지 못해

불안과 갈등에 휩싸이며 발버둥 쳤던 나날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지금의 후쿠시마 모습을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서로를 격려하는 따스함은

우리가 얻어낸 자부심 ‘후쿠시마 프라이드.’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후쿠시마에, 하마도리, 나카도리, 아이즈 세 지역이 웃음꽃으로 가득하기를!’

(다무라 시립 미야코지 중학교 이시이 류세이 씨)

15년 전 지금의 후쿠시마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한때 현 전체 면적의 12%에 달했던 피난 지시 등 구역은 이제 2.2%로 축소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귀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지역에서도 환경 복구를 추진하고 인프라, 주거, 의료 및 쇼핑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있는 피난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통해 과제 해결에 도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전체로 보면 현산 농산물의 수출량과 이주자 수, 관광객 방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웃음꽃 피는 후쿠시마를 향해 희망의 빛은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난 지시가 계속되어 시간이 멈춘 채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셨어도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떠올리며, 쓸쓸함이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작업은 매일 약 4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간 저장 시설로 반입되는 제거 토양 등의 현외 최종 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남은 기간이 19년 미만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현민 여러분이 그 전망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자력 재해에 따른 풍평 피해는 현 전체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쿠시마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안타깝게도 미증유의 복합 재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욱이 15년이라는 세월은

기억의 풍화라는 문제도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사람, 물건을 잃은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미나미소마 시립 가시마 중학교 모리 아야나 씨)

대지진을 경험한 우리는 미래를 잃어질 아이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과 교훈의 바통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온 것.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는 것.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어, 젊은이들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후쿠시마현의 미래를 일구어 나간다. 그런 모두가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부흥의 상징이 되도록 과거의 아픔을 힘으로 바꿔 빛나는 후쿠시마현의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니혼마쓰 시립 이와시로 중학교 간노 아키토 씨)

후쿠시마 현민 영예상 제 1 호 수상자인 등산가 다베이 준코 씨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과 후지산 등반에 도전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흥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길고 험난한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우리는 다베이 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폭을 배려하는 ‘다정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후쿠시마현은 탄생 150 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의 후쿠시마현을 일구어 주신 선조들,
아무리 혹독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쌓아오신 현민 여러분,
그리고 후쿠시마에 마음을 전하며 함께 하시는 국내외 모든 분들께
지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 ‘고맙습니다’를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계속 도전하여
반드시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후쿠시마를 만들 것을
15년째를 맞는 오늘, 이곳에서 맹세합니다.

2026년 3월 11일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

다베이 준코 씨

1939년 후쿠시마현 미하루마치 출생. 1975년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으며 이후 여성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제패까지 이루어낸 일본을 대표하는 등산가. 산악 환경 보호에도 힘썼으며 1991년에는 후쿠시마현 현민 영예상 제 1호 수상의 영예에 빛났다. 말년에는 투병 중에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동북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후지산 등반을 이어가는 등 평생에 걸쳐 산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실천했다.(2016년 별세)